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1. 2. 26.(금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상현, 사무관 이윤하, 주무관 정원식 • ☎ (044) 201-3887, 3880	
	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병석, 사무관 김병철 • ☎ (044) 201-3906	
	한국도로공사	담 당 자	• 부장 이익재, 차장 김재동 • ☎ (054) 811-2224	
보 도 일 시		2021년 3월 1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28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코로나-19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대

– 기존 대구·경북 한정 면제혜택을 3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–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와 한국도로공사(사장 김진숙)는 **코로나-19 감염병 확산** 방지를 위해 그간 대구·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해오던 **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**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.

○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‘20년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(경산시, 청도군, 봉화군) 일부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어 왔으나,

○ 최근 코로나-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**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.**

□ 코로나-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는 3월 1일부터 **하이패스를 이용하여**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**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** 받을 수 있으며, **하이패스 홈페이지(www.hipass.co.kr)**에서 신청할 수 있다.

* 비대면 결제 유도 및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하이패스 이용 차량으로 한정

-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‘심각’에서 ‘경계’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실시한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코로나-19로 인한 여객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선버스(고속·시외·광역)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, ‘20년 총 36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.
-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“앞으로도 코로나-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이윤하 사무관(☎044-201-38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1) 증빙서류 : '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확인서', 또는 '의료인 등 인력지원 신청확인서'

2) 발 급 처 : 전국 지방자치단체(시군구 포함) 및 관할 보건소

3) 하이패스 홈페이지(www.hipass.co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에 게시된

'의료지원 차량 면제(환불)' 안내 팝업창을 통해 개인정보 및 통행료 환불 정보* 입력

* 차량번호, 고객성명, 연락처, 이용IC(파견 의료기관 인근), 하이패스카드 일련번호, 환불 계좌번호, 파견의료인력 확인서 등

* 홈페이지 내 '의료지원 차량 면제(환불)' 안내 팝업창은 3월 초 중 게시될 예정